

研究論文

牽牛織女說話에 대한 古代天文學的 試論

전 관 수*

I. 들어가기	V. 맺음말
II. 牽牛織女說話와 七夕	<참고문헌>
III. 『詩經』에 나오는 牽牛織女에 대한 分析	<국문요약>
IV. 牽牛織女의 만남과 離別에 대한 새로운 解釋	

I. 들어가기

누구나 알듯이 그리스神話에 등장하는 많은 神들에게는 별자리가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古代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敍事詩』에서 12 차례에 걸친 길가메시의 모험은 모두 黃道上的 별자리와 관련되어 있다고도 한다.¹⁾ 이러한 사실들은 神話가 밤하늘의 별자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說話 혹은 神話를 밤하늘과 견주어서 해석한다는 것은 還元主義的 方法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고전문학 전공(bingpok@empal.com).

1) “예를 들면 전갈자리에서는 전갈의 몸에 사람 얼굴을 가진 이를 만나고, 염소자리에서는 죽음의 강을 만나고, 황소자리에서는 에이—바나라는 이름을 가진 괴물—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소의 몸을 한—에게 가르침을 받고, 처녀자리에서는 이슈타르에게서 칭혼을 받는 식이다. 아마 바빌로니아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태어나면 영생불사를 추구하고, 태양신을 따라 각종 별자리를 거치며 아득한 영혼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장샤오위엔(저)/홍상훈(역), 『별과 우주의 문화사』(바다출판사, 2008), 51~52쪽.

論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엘리아데(M. Eliade)의 神話學은 象徴의 還元 불가능성과 聖俗의 변증법을 바탕으로 하여 人文學을 위한 새로운 解釋學을 만들어냄으로써 神話學의 독립적 位相과 哲學的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해 주었다. 이런 마당에 說話나 神話を 별자리들의 움직임으로 설화나 神話を 분석한다는 것은 神話의 상징성을 해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징적 구조물로 보는 說話나 神話を 밤하늘이나 별자리의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還元主義인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哲學的 반성이 필요하다. 애초부터 별자리(星座, constellation)²⁾라는 것은 밤하늘에 존재하지 않는다. 밤하늘에는 오직 별들만 멋대로 흩뿌려져 있지만, 인간은 文明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밤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들을 모아서 하나의 별자리로 만들어 놓았다. 한마디로 지구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놓여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들을 묶어서 별자리를 만든 일 이야말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보다 철저히 상상력의 소산인 셈이다.³⁾ 이런 점은 동양의 별자리와 서양의 별자리가 확연히 다른 것만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관점에 설 때 밤하늘의 별자리와 관련하여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牽牛織女說話이다. 특히나 牽牛織女說話는 文化史的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한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다.

- 牽牛織女說話는 韓中日이라는 東洋三國이 공유하는 說話이다.
- 牽牛織女說話는 아직도 음력 7월 7일 七夕날만 되면 흔하게 듣게 되고, 日本의 경우에는 祝祭—다나바다마쯔리(棚機祭)—로 발전되어 아직까지 살아 있다.

2) 엄밀한 의미에서 constellation은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구획된 공간 개념이고, 우리가 흔히 선을 이어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 별자리는 asterism이다. 그리고 별자리라는 말은 단순히 星座를 번역한 말에 불과하고, 동양의 古代天文學에서는 星官이라는 말을 주로 썼다.

3) 물론 엄밀히 말하면 별자리는 단순히 상상력을 통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대체로 黃道에 배치된 12宮은 모두 黃道에 예리한 각도로 꺾이면서 배치되었다거나 바다뱀자리(Hydra)는 원래 赤道에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별자리는 고도의 관측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마이클 오벤든(Michael Ovenden)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나아가 그는 과거 서양의 천문학 서적에 나오는 별과 별자리들의 출몰 지역을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별자리가 만들어진 곳은 대략 그 緯度가 北緯 34½에서 37½ 사이이고 그 시기는 기원전 3400년에서 1800년 사이라고 주장하였다. Thurston, Hugh, *Early Astronomy*(New York: Springer-Verlag, 1994), p. 137.

이런 점에서 牽牛織女說話를 분석하는 일은 古代 東北亞의 神話的 배경을 규명해내는 유익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의 文學 쪽 논문들을 보면, 牽牛織女說話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논문은 드물다.⁴⁾ 說話 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漢詩 쪽을 보아도 牽牛織女를 노래한 漢詩들은 많지만 특별한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일부의 研究論文들은 새로운 분석을 위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하는 文學教育的 접근이 많다. 이처럼 牽牛織女說話는 歷史的 무게에 비해서 본격적인 研究 분야에서는 소외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⁵⁾

대체로 牽牛織女說話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文學 쪽이 아니라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자와 日本文學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우선 전호태는 牽牛織女說話의 起源을 농경과 관련하여 자세히 분석하면서 408년에 만들어진 덕흥리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織女圖를 5세기 무렵 고구려 사회에서 직물산업의 번창에 따른 결과임을 면밀하게 증명해내었다.⁶⁾ 반면에 노성환은 위의 織女圖에서 織女 옆에 그려진 검은 개의 존재를 해명하기 위해서 日本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면서 한편으로 日本의 牽牛織女說話에서 검은 개가 牽牛와 織女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話素를 통해서 검은 개의 존재를 새롭게 해명하였고, 이러한 검은 개의 존재는 中國의 牽牛織女說話보다는 고구려에서 전해졌던 牽牛織女說話가 日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였다.⁷⁾ 또한 李相俊은 韓中日의 牽牛織女傳說에 대한 歷史的 전개 과정을 본격적으로 천착해내었다는 점에서 그 연구 의의가 있으며, 특히 中國의 牽牛織女說話에는 검은 개가 등장하지 않고, 고구려와 日本에 전해지는 자료에만 검은 개가 등장한다고 함으로써 韓日의 牽牛織女說話가 中國의 牽牛

4) 관련 논문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金錫夏, 「牽牛織女 聚會說話 의文學的 展開」, 『국어국문학』, 49-50권(국어국문학회, 1970); 손진태, 「신화상에서 본 고대의 여성관」, 『손진태전집(6)』(태학사, 1981); 최상수, 「七夕 說話」, 『韓國 民族 傳說의 研究』(성문각, 1985); 이지영, 「織物神의 傳承에 관한 試論의 研究」, 『口碑文學研究』, 14집(한국구비문학회, 2002); 신원기, 「牽牛織女 이야기의 文學教育的 價値 分析」, 『어문학교육』, 29집(한국어문교육학회, 2004); 신원기, 「韓中 牽牛織女說話의 比較 研究」, 『어문학교육』, 31집(한국어문교육학회, 2005); 조미라, 「韓中 朝鮮族 牽牛織女說話와 牽牛橋說話의 比較 研究」, 『어문학교육』, 36집(한국어문교육학회, 2008).

5) 韓中日이 공유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牽牛織女說話는 中國의 說話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야기라는 사실 때문에 혹여 그 고유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6)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직녀도」, 『역사와 현실』, 38집(한국역사연구회, 2000).

7) 노성환, 「고구려 고분벽화와 일본의 칠석설화」, 『日語日文學研究』, 64집(일어일문학회, 2008).

織女說話보다 친연성이 강하다는 점을 새롭게 부각시켜 놓은 의의가 있다.⁸⁾

이 論文은 이러한 기존의 研究 結果들을 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주로 牽牛織女說話와 음력 7월 7일이라는 날짜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牽牛織女의 만남과 이별을 실제로 밤하늘에 있는 牽牛星과 織女星이 음력 7월 초에는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유래한다⁹⁾는 민간어원적 상식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牽牛織女說話의 본질과 그 說話의 생명력을 새롭게 해명하고자 한다.

II. 牽牛織女說話와 七夕

牽牛織女說話와 七夕, 즉 음력 7월 7일이라는 날짜의 상관성은 왜 중요한 것일까? 이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 수 있다. 가령 음력 1월 1일 설날에 牽牛織女說話를 이야기하는 경우와 七夕을 전후로 牽牛織女說話를 이야기하는 경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야기 자체만을 들려준다고 한다면 牽牛織女說話를 설날에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牽牛織女說話를 설날 혹은 단오날, 한가위날 등과 관련하여 굳이 한다고 한다면 어딘가 어색하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牽牛織女說話를 七夕에 해야 어울리는 것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자연현상들이 실제로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七夕에 내리는 비는 1년 동안 헤어져 있던 牽牛織女가 서로 만나서 흘리는 눈물이다.
- 七夕이 지나면 까치의 머리에 있는 깃털이 빠지는데 그 이유는 七夕날 모든 까치들이 은하수를 가로질러 다리를 놓으면 牽牛와 織女가 까치의 머리를 밟고 가기 때문이다.

七夕 때 내리는 비(七夕물)와 牽牛織女의 눈물을 관련짓는다는 것은 牽牛織女說話가 실제로 1년 중 七夕 때의 날씨와 관련이 있는 말이다. 대개 음력 7월 7일은

8) 李相俊, 「고대 동아시아의 칠석문화연구」, 『日語日文學研究』, 65집(일어일문학회, 2008).

9) 이러한 태도는 이미 백과사전적 지식이 되어 있고, 특히 李相俊은 日本 학자들의 연구 결과까지 자세히 언급하면서 일반화시키고 있다.

節氣로 보면 立秋와 엇비슷하다. 옛날부터 立秋가 지나면 한여름 무더위도 꺾이고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 채미를 하기 시작하는 때이고, 김장용 무·배추를 심어 겨울감장에 대비하고 농촌에서는 김매기도 끝나가면서 조금은 한가해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말하자면 七夕에 내리는 비는 이렇게 가을을 예고하는 비라는 점에서 牽牛織女가 흘리는 눈물과 7월 7일 무렵에 내리는 비가 隱喻的 關係를 통해서 一體化되어 있다.

또한 7월 7일 무렵이 지나면서 까치들은 털갈이를 하느라고 깃털이 빠진다고 한다(까치의 머리털이 빠지는 일은 실제로 지금도 7월 7일 무렵이면 확인할 수 있다). 역시 까치의 머리털이 빠지는 것과 7월 7일이라는 날짜는 기본적으로 시기적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天體와 자연과 인간 활동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古代의 모든 文明圈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古代 그리스의 歷史家 헤시오도스(기원전 700년 무렵 활동)는 『노동과 나날』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의 “연간 일정표”로 정리해 놓기도 했다. 이 가운데 10월¹⁰⁾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천체의 움직임: 플레이아데스 해질녘 짐

자연의 운동: 학 이동, 나뭇잎이 떨어짐, 가을비, 새 포도주의 계절 끝남

인간의 활동: 밭갈이 시작, 출항 금지¹¹⁾

아마존강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도 이런 사례들은 그대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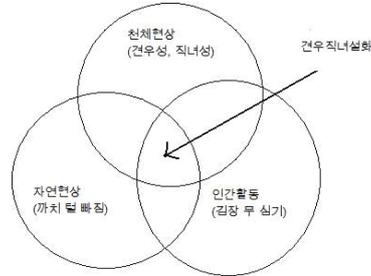
팀비라족(남위 3°~9°)은 9월에서 4월까지 계속되는 우기를 준비한다. 다시 말해서 플레이아데스가 저녁 해가 진 후 서쪽 지평선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되면, 이때가 이들에게는 농장에서 일할 시기다.¹²⁾

10) 古代 그리스에서는 태음태양력을 사용했는데 각 지역마다 한 해의 시작이 달랐다. 아테네의 경우는 여름이 한 해의 출발이고 마지막달은 곡식을 탈곡하는 6~7월이었다.

11) 앤서니 에브니(저)/최광열(역), 『시간의 문화사』(북로드, 2007), 68쪽 정리 인용.

12) 레바스트로스(저)/임봉길(역), 『신화학1』(한길사, 2006, 2쇄), 425쪽.

牽牛織女說話 역시 7월 7일이라는 날짜를 중심으로 하여 천체 현상(牽牛星과 織女星의 움직임), 자연 현상(까치의 머리털이 빠짐), 인간 활동(김장용 무, 김치 심기)이 이야기 속에 一體化되어 있고, 이렇게 天地人이 一體化된 이야기 구조가 깨지지 않고 지금도 전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7월 7일이 牽牛織女說話와 관련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기실 이 점을 증명하는 일이 이 논문의 목적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牽牛織女說話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를 아우르는 지점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III. 『詩經』에 나오는 牽牛織女에 대한 分析

牽牛織女說話의 原型은 周나라 때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詩經』에서 처음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詩經』의 자료는 牽牛星과 織女星이 최초로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維天有漢 監亦有光	음, 하늘에는 은하수 볼수록 빛나고
跂彼織女 終日七襄	발길질하는 저 織女 온종일 일곱 번 자리 옮기네.
雖則七襄 不成報章	비록 일곱 번 옮겨 앉아도 무늬 놓은 비단 짜지 못하는데
腕彼牽牛 不以服箱	반짝이는 저 牽牛도 수레를 끌지 못하네.
東有啓明 西有長庚	동쪽에는 啓明星 서쪽에는 長庚星
有捋天畢 載施之行	하늘에는 天畢이 펼쳐져 있네.
維南有箕 不可以簸揚	남쪽에는 箕宿 있으나 곡식 까불지 못하고
維北有斗 不可以挹酒漿	북쪽에는 北斗 있으나 술과 국 뜨지 못하네.
維南有箕 載翕其舌	남쪽에는 箕宿 있는데 혀를 당기고
維北有斗 西柄之揭	북쪽에는 北斗 있는데 서쪽으로 자루 걸려 있네.

— 『詩經』 「小雅谷風之什」

베틀질하는 織女가 일곱 번 자리를 옮겨 앉는다는 것은 織女星이 밤새 밤하늘을 돌 때 밤하늘에 12개로 나누어진 次 가운데 7次를 옮겨 다닌다는 말이다.¹³⁾ 織

女星에 이어서 곧바로 牽牛星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두 별자리가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牽牛星에 대해서는 수레를 끌지 못한다고만 했고 두 별자리에 대한 어떤 상관적 이야기를 노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는 당시까지만 해도 牽牛星과 織女星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진 牽牛織女說話가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¹⁴⁾

나머지 별자리들을 보면, 天畢(쌍둥이자리/Gemini), 箕宿(사수자리의 일부/Sagittarius), 북두칠성(큰곰자리/Ursa Major), 啓明星(長庚星)(Venus)¹⁵⁾ 등이다. 우선 북쪽에 있는 北斗七星이 서쪽을 가리킬 때(대체로 일몰 직후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다)는 대체로 가을 무렵이다. 실제로 이 무렵에 箕宿은 남쪽 지평선에 걸렸다가 사라지고 얼마 뒤에는 天畢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牽牛星과 織女星은 거의 天頂 가까이 위치한다. 이런 점에서 『詩經』에 나오는 위의 별자리들의 움직임은 가을 무렵의 밤하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金星은 行星이기 때문에 아침에 떠오를 때가 있고 저녁에 떠오를 때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때라고 말할 수는 없는 점에서 『詩經』에 나오는 위의 詩는 오랜 시간을 걸치면서 완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¹⁶⁾

결국 이 詩는 가을 무렵 밤하늘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벌어지는 밤하늘의 여러 별자리들을 표현하는 것이지 牽牛星과 織女星이 따로 특별히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牽牛織女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애정 이야기의 단초가 西漢 初에 石像을 세운 뒤로부터 비롯된다는 주장¹⁷⁾과도 一脈相通한다.

13) “일곱 번 옮긴다는 것은 자세히 알 수 없다. 傳에 말하기를 반복한다는 뜻이라고 했고 鄭玄箋에 서는 타는 것이라고 했다. 탄다는 것은 그 肆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대개 하늘에는 12개의 次가 있으니 해와 달이 머무는 집으로 이른바 肆라고 한다. 經星(恒星을 말함: 필자)은 하루 낮 하루 밤에 왼쪽으로 한 바퀴 돌고 조금 더 돌기 때문에 종일 사이에 卯時에서 酉時까지 옮기려면 마땅히 7개의 次를 바꾸어야 한다”(七襄未詳 傳曰 反也 箋云 駕也 駕謂更其肆也 蓋天有十二次 日月所止舍 所謂肆也 經星一晝一夜 左旋一周而有餘則終日之間 自卯至酉當更七次也)(『詩經集註』).

14) 李相俊 역시 동일한 견해로 『詩經』에 실린 牽牛織女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했다. 李相俊, 앞의 논문, 295쪽.

15) 金星이 아침에 뜰 때는 啓明星, 저녁에 뜰 때는 長庚星.

16) 그 기간은 최소한 8년 정도 걸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金星의 다섯 번의 순환주기는 8년과 거의 맞먹기 때문이다.

17) 전호태는 牽牛織女의 애정 이야기가 늦어도 曹魏時代에는 틀을 갖추고 민간에 유포되고 있었던

IV. 牽牛織女의 만남과 離別에 대한 새로운 解釋

牽牛와 織女는 1년 동안 헤어졌다가 왜 7월 7일에 하루만 만나고 다시 헤어져야 했던 것일까? 다시 말해 牽牛星과 織女星의 어떠한 움직임을 牽牛와 織女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으로 인식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식 선에서 七夕이 되면 두 별이 가까워진다고 설명한다. 아마도 이러한 식의 설명에 대하여 가장 잘 정리한 것은 바로 李相俊의 글이다.

고대 농경민들에 있어서, 은하수의 동서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기가 대개 7월 초였던 것이기 때문에, 두 별이 7월 초에 만난다고 하는 天上의 사랑 이야기가 형성되었다...7월에 직녀성이 마치 서쪽으로 움직이듯 밝게 빛나는 현상을 직녀가 은하수를 渡河하여 견우와 밀회를 나누는 인식으로까지 발달하게 된 것은 고대중국의 계절제와 도하의례와 여성이 자침금을 갖고 남성 집으로 들어가는 결혼풍속 및 여성이 남성 곁으로 찾아가는 「天人女房型」의 신화와 전설 등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¹⁸⁾

반면에 현대천문학에서는 牽牛와 織女의 만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지구로부터 베가(직녀성의 알파별)와 알타이르(견우성의 알파별)의 거리와 외관상의 두 별의 각도를 통해서 두 별의 실제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15광년이 나옵니다...두 별이 매년 한번 만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¹⁹⁾

결국 현대천문학적 입장에 서면, 牽牛織女說話는 그저 황당한 이야기가 될 뿐이다.

것으로 추정한다(전호태, 앞의 논문, 133쪽). 그러나 그도 漢武帝 때 昆明池 곁에 織女의 石像을 세워놓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듯이 이때는 牽牛와 織女 두 사람의 石像이 세워졌는데, 중국의 학자들은 이런 점에서 牽牛織女의 애정 이야기가 처음으로 생성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고 魏晉南北朝 시대에 이미 牽牛織女說話는 정형화된 것으로 파악한다(织女 `牽牛兩星의 称谓, 最早见于《诗经》西汉初的长安, 牛郎 `织女的爱情神话开始生成, 长安斗门今存西汉牛女二石像, 这是牛女星宿最早的人形化 魏晉南北朝时期这一神话的人物和情节已经定型) 劉學智·李路兵, 『七夕文化源流考论』(陝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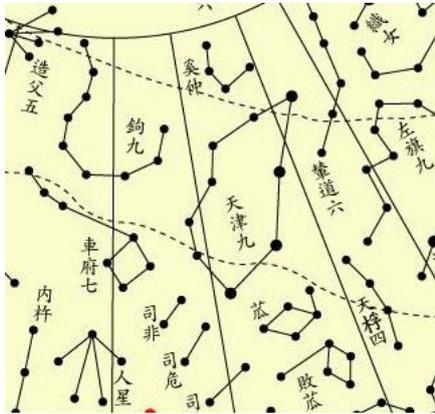
18) 李相俊, 앞의 논문, 293~294쪽.

19) 박두이(편), 『별자리와 친해지자』(교원, 1992), 25쪽.

과연 은하수를 가운데에 두고 자리잡은 牽牛星과 織女星처럼 좁힐 수 없는 서로 다른 설명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점을 새롭게 해명하기 위해서 우선 牽牛와 織女가 만나기 위해 건넜다는 烏鵲橋부터 살펴보자. 牽牛가 牽牛星을 의인화한 것이고 織女가 織女星을 의인화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異論이 없지만, 은하수를 가로 질러 있다는 烏鵲橋도 별자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烏鵲橋는 바로 牽牛星과 織女星 부근에 있는 백조자리를 가리킨다. 대개 백조자리는 동양의 별자리로는 天津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백조자리가 왜 烏鵲橋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는 烏鵲과 다리로 나누어 살펴보자.

<그림 1>의 天津과 뒤에 나오는 <그림 2>의 백조자리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天津은 대체로 백조자리의 날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天津



<그림 1> 天象列次分野之圖에 그려진 天津(점선은 은하수의 경계)

은 은하수를 거의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 별자리를 다리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별자리를 烏鵲, 즉 까치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 백조자리의 꼬리 부분을 더해야 한다. 즉 백조자리의 꿈무늬 쪽을 까치의 머리로, 백조자리의 날개를 까치의 날개로, 백조자리의 머리를 까치의 꼬리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烏鵲橋란 커다란 까치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까치라는 이름이 붙고 은하수에 온통 걸쳐져 있기 때문에

다리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牽牛織女說話에 나오는 세 별자리들인 牽牛星, 織女星, 天津(백조자리)를 가지고 실제로 밤하늘을 보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별자리들은 서로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牽牛星의 알파별인 알타이르, 織女星의 알파별인 베가, 백조자리의 알파별인 데네브를 연결한 것을 통상 “한여름의 대삼각형”이라고 부를 만큼 한여름 밤하늘에서 유명한 별자리들이기도 하다.

대체로 古代에 별을 관측하는 방식은 밤에 밖에 나가서 아무런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출직전 혹은 일몰직후라는 시간 기준을 반드시 둔다. 그리고 관측대상이 되는 별은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일출 직전에 동쪽 지평선에 처음 떠오르는 별이거나 일출 직전 서쪽 지평선에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별이거나 혹은 일몰직후 동쪽 지평선에 처음 떠오르는 별이거나 일몰 직후 서쪽 지평선에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별”이다.²⁰⁾ 고대 중국의 경우에도 처녀자리의 알파별인 스피카(Spica)에 해당하는 角宿가 “음력 2월 초부터 동쪽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농사를 시작했다”²¹⁾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대천문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음력 7월 7일 무렵의 밤하늘 가운데 최소한 위에서 설명한 대로 4가지의 경우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지만, 7월 7일 무렵 밤하늘 가운데 위의 네 가지 방식에 가장 적합한 것은 아래와 같이 일출직전 서쪽 밤하늘로 보인다.²²⁾

20) 앤서니 에브니(저)/박병철(역), 『별을 향한 길』(영림카디널, 1999), 79쪽. 통상 古代天文學에서는 일출직전 혹은 일몰직후에 어느 天體가 지평선 위에 처음 나타나는 現象과 마지막으로 아래로 사라지는 現象을 각각 해뜰질녘 뜨기(힐라이어컬 라이징, heliacal rising) 혹은 처음 보이기(first visibility)와 해뜰질녘 지기(힐라이어컬 세팅, heliacal setting) 혹은 마지막 보이기(last visibility)라고 부른다(Thurston, Hugh, *op.cit.*, pp. 79, 262 etc.). 이러한 별 관측 방식은 古代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中南美의 마야 文明圈이나 잉카 文明圈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되었다.

21) 陳久金, 『星象解碼』(2004), 111쪽; 서영대, 「고구려의 社稷과 靈星에 대하여」,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고구려연구재단, 2005), 51쪽 재인용.

22) 대개 牽牛織女가 아침에 헤어진다는 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하룻밤에 烏鵲橋가 은하에 가로놓이자/따듯한 원앙 장롱 아래 中堂을 활짝 열고/萬里를 와서 만나니 좋은 기약 달콤했는데/좋은 기약이 뜻밖에 너무나도 초초해라/하늘 닦이 울어대니 동녘이 밝아지네 /紅神(織女: 필자)은 울고 나서 이별을 하소연하여라(…鵲橋一夜橫天波/鴛鴦帳暖開中堂/相逢萬里佳期香/佳期不覺大草草/天鷄啞啞搏桑曉/紅神啼殘訴別離…)(徐居正, 『四佳詩集』 卷之三十三 「七夕吟」).



<그림 2-1> 기원전 200년 음력 7월 7일 일출직전 국내성 부근 서쪽 밤하늘의 모습(가운데에 있는 수평선은 지평선으로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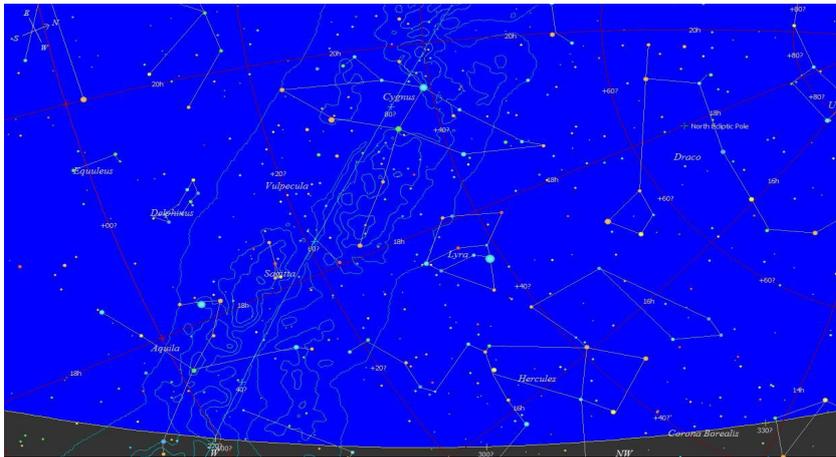


<그림 2-2> <그림 2-1> 가운데 牽牛星 등이 있는 부분을 확대한 것

23) 『詩經』이 편찬된 周나라는 長安(지금의 西安)을 중심으로 하는 黃河 부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天文시뮬레이션프로그램상 관측 장소는 長安으로 맞추었다. 관측 시기를 기원전 200년으로 맞춘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牽牛織女의 石像이 세워진 때가 西漢 초이고 牽牛織女說話의 주요 발상지가 長安(東經 107°40' ~109°49' /北緯 33°39' ~34°45')으로서 漢水 유역의 襄陽, 南陽 지역이라고 한다(杜漢華, 「“牛郎织女”“七夕节”源考」, 『襄樊职业技术学院学报』, 2004)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그림 2-1>에서 가로놓인 줄은 지평선이다(일출 직전이라고 했으니 지평선 아래는 실제로 볼 수 없다). 가장 오른쪽 지평선 위에 밝은 빛은 해이다. 따라서 일출이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로놓인 지평선 가운데 왼쪽 위로 보면 날개를 펼친 것 같은 별자리가 바로 백조자리(烏鵲橋)이고 날개의 가운데쯤에 가장 밝은 별은 백조자리의 알파별인 데네브(Deneb)로서 동양에서는 河鼓大星이라고 부른다. 그 별에서 약간 5시 방향의 지평선 가까이에 있는 아주 밝은 별은 거문고자리의 알파별인 베가(Vega)로서 바로 牽牛星이다. 또 가장 왼쪽 끝을 따라서 지평선 아래까지 내려가다 만나는 밝은 별은 독수리자리의 알파별인 알타이르(Altair)로서 바로 牽牛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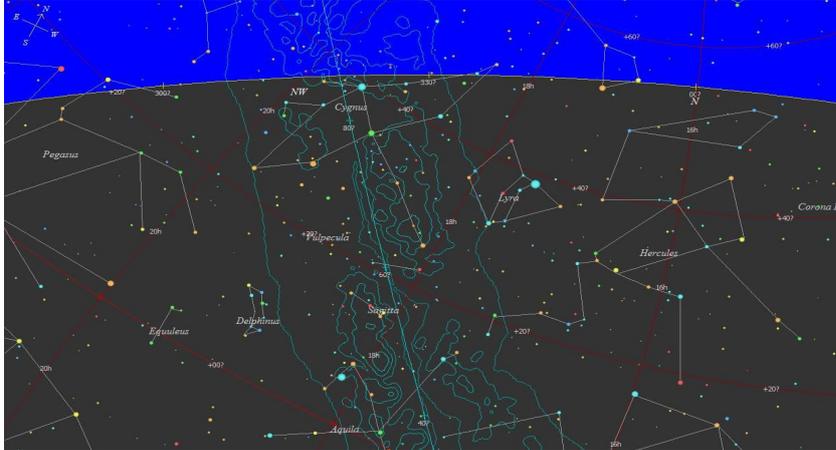
이렇게 위에 시뮬레이션된 밤하늘을 보면, 일출 직전에 織女星(거문고자리)과 烏鵲橋(백조자리)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7월 7일보다 앞선 때의 밤하늘을 살펴보자.



<그림 3> 음력 7월 7일보다 한달 쯤 이전 일몰 직후 서쪽 밤하늘(아래에 휘어 있는 줄은 지평선이고, 오른쪽 지평선에서 약간 11시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밝은 별은 牽牛星이고, 거기에서 다시 3시방향으로 가다가 만나는 밝은 별은 織女星이고 거기서 다시 11시 방향으로 가다가 만나는 밝은 별은 백조자리의 데네브 즉 天津으로 烏鵲橋이다).

별은 시계반대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위의 <그림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7월 7일 무렵보다 한 달 쯤 전에는 7월 7일 무렵 일출직전에 이미 지평선 아래로 내려

가 있던 독수리자리(牽牛星)도 볼 수 있다. 결국 7월 7일보다 한 달 쯤 전에는 일출직전에 세 별자리를 모두 볼 수 있지만, 7월 7일을 전후 일출 직전이 되면 牽牛星은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 아래의 그림을 보자.



<그림 4> 7월 7일 뒤로 한 달 무렵 지난 날 일출직전 서쪽 밤하늘(위로 공글린 줄은 지평선이기 때문에 그 아래쪽은 실제로는 볼 수 없음)

<그림 4>는 7월 7일이 지난 한 달 뒤 일출 직전 서쪽 밤하늘의 모습이다. 이제 서쪽 지평선 위에서는 牽牛星뿐만 아니라 織女星도 볼 수 없고 백조자리(烏鵲橋)도 볼 수 없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시기별 <그림 3> → <그림 2> → <그림 4>로 다시 정리해 보자.

- ① 7월 7일 이전에는 (일출직전 서쪽 지평선 위에서)
牽牛星, 織女星, 烏鵲橋(백조자리)를 모두 볼 수 있다.
- ② 7월 7일이 되면서 (일출직전 서쪽 지평선 위에서)
牽牛星과 織女星은 볼 수 없고 烏鵲橋만 볼 수 있다.
- ③ 7월 7일 이후가 되면 차츰 (일출직전 서쪽 지평선 위에서)
牽牛星, 織女星, 烏鵲橋를 모두 볼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

위의 세 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림 3>처럼 牽牛星, 織女星, 烏鵲橋를 모두 밤하늘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밤하늘에서 (마음만

먹으면) 烏鵲橋를 건너서 만날 수 있다. 牽牛와 織女가 결혼한 뒤로 늘 함께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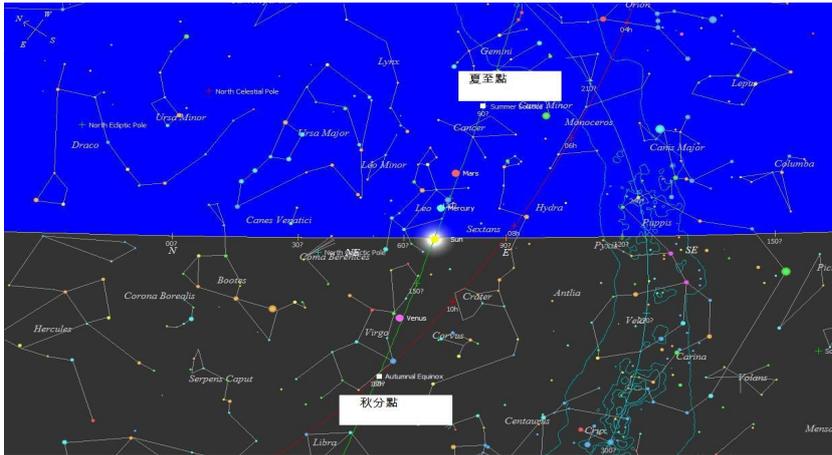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2>처럼 7월 7일의 일출 직전 서쪽 밤하늘에서 牽牛星은 볼 수 없고 織女星과 烏鵲橋만 함께 볼 수 있다. 牽牛와 織女가 1년 동안 헤어졌다가 하루만 烏鵲橋를 건너서 만나고 아침에 헤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아마도 정확하게는 牽牛星과 織女星을 일출직전 서쪽 지평선에서 마지막 보는 날이 실제적인 七夕의 밤하늘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태양태양력을 정확하게 만들어낸다고 태양태음력을 보정하기 위해서 閏달을 두어야 하듯이 해마다 해와 달을 완전하게 일치시키는 완벽한 태양태음력은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끝으로 <그림 4>처럼 7월 7일 이후에는 일출 직전 서쪽 밤하늘에서 牽牛星, 織女星, 烏鵲橋를 모두 볼 수 없게 된다. 牽牛와 織女가 烏鵲橋를 통해 한번 만나고 나서 다시 1년 뒤에나 만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볼 때 牽牛織女의 만남과 이별은 7월 7일 전후 일출직전 서쪽 지평선에 떠 있는 牽牛星, 織女星, 烏鵲橋(백조자리)의 움직임의 특징을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세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측해야만 했던 근거가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7월 7일 무렵에 왜 굳이 牽牛星, 織女星, 烏鵲橋의 움직임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했던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7월 7일 무렵 해의 위치를 보여 주는 또 다른 그림을 보자.

<그림 5>에서 보듯이 기원전 200년 무렵에는 夏至點이 게자리 부근에 있었고 秋分點은 처녀자리의 엉덩이 쪽에 있었다. 그리고 7월 7일 무렵 해는 사자자리(동양의 별자리로는 軒轅이라고 부른다)의 뒷다리 쪽을 막 통과할 때이다. 결국 7월 7일 무렵은 夏至와 秋分の 중간 쯤 되는 立秋 정도에 해당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7월 7일 무렵을 전후로 立秋가 있다). 실제로 날씨로 보면 7월 7일 무렵은 여전히 한여름의 날씨가 기승을 부리지만, 해는 정확하게 여름을 지나 여름농사일을 마무리 짓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할 때 牽牛織女說話는 원래 계절이 7월 7일 무렵이면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그 무렵 牽牛星과 織女星의 움직임으로 스케치해낸 이야기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개 古代 중국에서 1년은 春夏秋冬로 인식

하게 시작한 것은 西周(기원전 1111~256) 末葉이었다(계절의 순서는 지금과 달리 冬春夏秋로 되어 있었다).²⁴⁾ 또한 呂不韋(?~기원전 235)가 썼다고 알려진 『呂氏春秋』에도 立春, 立夏, 立秋, 立冬이라는 4계절의 출발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²⁵⁾ 이렇게 중국에서 4계절을 구별하기 시작한 때가 시기상 牽牛織女說話가 생겨난 때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절대로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림 5> 7월 7일 무렵 해의 위치(가운데에서 약간 기울면서 아래로 뻗은 줄은 줄은 해가 다니는 黃道이다. 위의 네모칸 부근에는 夏至點이 있고 아래 네모칸 부근에는 春分點이 있다.

V. 맺음말

앞서 古代 中國에서는 角宿가 음력 2월 초부터 동쪽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기준으로 농사를 시작했다고 했고 지금까지 분석한 대로 立秋 무렵을 알려주는 별자리들로 烏鵲橋(天津), 牽牛星, 織女星 등이 일출 직전 힐라이어컬 세팅하는 모습을 활용했다는 것을 새롭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朝鮮朝 士大夫들은 대체로 牽牛織女說話 자체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朝鮮 中期的 金正國

24) 許進雄(저)/洪熹(역), 『중국고대사회』(東文選, 1991), 567쪽.

25) 王力(저)/李鴻鎮(역), 『中國古代文化常識』(형설출판사, 1989), 23쪽.

은 牽牛織女說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한 어조로 자신의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무릇 하늘은 곧 하나의 元氣이다. 해와 달, 별은 곧 元氣의 英華로서 陰陽과 五行에 불과하다. 陰陽五行이 있는 뒤에 이에 經緯의 說이 있게 된다. 28宿는 經星(필자: 恒星을 말한다)이 되고, 五星은 緯星(필자: 行星을 말한다)이 된다. 마치 베틀질할 때 날줄과 씨줄이 하는 그런 것과 같아서 못별들은 한곳에 붙박여 있고 오직 五星만이 움직이니 이것은 바로 天機로서 절로 그런 것이어서 함이 없어도 그렇게 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牽牛星과 織女星은 단지 두 개의 별일 뿐이다. 어찌 유독 두 별에게만 남녀의 道와 부부의 情이 있어서 만나고 헤어지고 한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牽牛와 織女의 이름만 몰래 취해서 그 말을 사실로 여긴 것이니 못별들에게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은 오직 그 별의 모양만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다. … 아! 牽牛와 織女의 일은 다만 엉터리요 허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있는 뒤로 詩를 짓는 사람들은 그 허탄한 것을 즐겨워하고 그 이야기를 기대어서 후세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26)

이렇게 儒學에 바탕을 둔 士大夫들이 牽牛織女說話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서는 이유는 儒敎의 王朝를 뒷받침하는 天文學은 별 관측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儒敎의 王朝를 뒷받침하는 동양의 天文學은 일반적으로 어느 별이 힐라이어컬 라이징하거나 힐라이어컬 세팅하는 현상을 기준으로 별을 관측하는 방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일몰 직후 子午線을 통과하는 별을 관측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별을 쥔 때도 북극성에서부터 去極度를 재고 28宿의 距星에서부터 入宿度를 잰다.27) 이러한 天文 관측방식에서 볼 때 牽牛織女說話에 대하여 金正國

26) 夫天乃一元氣也 日月星 卽元氣之英華也 而不過曰陰陽五行而已 有陰陽五行而於是乎有經緯之說焉 二十八宿爲經 五星爲緯 若織之經緯然也 衆星各有定居 而惟五星流行 此天機自然 無爲而無不然也 牛女二星 何獨有男女之道 夫婦之情 果有所謂離合者乎 爲此說者 竊取其牛女之名以實其言 則衆星之有名號 特指其象耳…嗚呼 談牛女之事 而溺於詭誕者則已矣 自後之爲詩者 亦或樂其誕而騁其說 以眩瞽後世何哉(金正國, 『思齋集』 卷之三 「牛女會辨」).

27) 중국인들이 언제부터 子午線 관측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시기는 28宿의 별 체계가 만들어진 때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8宿가 대체로 赤道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28宿와 子午線이 직각을 이룬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북쪽을 등지고 남쪽 子午線을 통과하는 별을 관측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8宿의 완벽한 흔적은 기원전 433년 무렵에

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다. 말 그대로 별은 밤하늘에 여러 지역에 펼쳐져 있는 모양을 가진 하나의 元氣로서 去極度와 入宿度로 완벽하게 표시될 수 있는 天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牽牛星과 織女星, 烏鵲橋 역시 子午線을 지나가는 수많은 天體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古代 中國의 天文學者들은 夏至, 冬至, 春分, 秋分뿐만 아니라 黃道를 15°씩 나누어 24節氣를 만들어놓음으로써 더 이상 별들의 움직임으로 특정한 節氣 등을 정할 필요성이 이른 시기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결국 牽牛織女說話는 子午線이 아니라 지평선을 관측 기준면으로 활용하면서 별들의 힐라이어컬 세팅을 관측했던 흔적인 셈이다.²⁸⁾

참고문헌

徐居正, 『四佳詩集』.

김일권, 「四神圖 형식의 성립 과정과 漢代의 天文星宿圖 고찰」, 『高句麗研究』 11집, 고구려연구회, 2001, 287~304쪽.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서울: 예문서원, 2007.

김일권,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서울: 사계절, 2008.

노성환, 「고구려 고분벽화와 일본의 칠석설화」, 『日語日文學研究』 64집, 일어일문학회, 2008, 287~304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증후을묘(曾侯乙墓)이다[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예문서원, 2007), 153~155쪽].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 별자리는 은나라 갑골문에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김일권,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사계절, 2008), 13쪽.

28) 여기서 지평선을 관측 기준면으로 활용하는 별 관측 방식과 子午線을 관측 기준면으로 활용하는 별 관측 방식에 따라서 神話가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별자리에 神話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별자리들은 子午線이라는 아주 객관적인 기준(지평선을 관측 기준면으로 활용할 때는 緯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만, 子午線을 기준으로 하면 그럴 염려가 없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진 수학적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天文學은 커다란 땅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 시기부터 緯도의 영향을 받는 지평선 관측 방식을 버리고 緯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子午線 관측 방식을 과감히 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 天文學은 발달했지만, 神話는 犧牲된 셈이다.

레비-스트로스(저)/임봉길(역), 『신화학1』. 서울: 한길사, 2006, 2쇄.
 안상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별자리』. 서울: 현암사, 2000.
 앤서니 에브니(저)/박병철(역), 『별을 향한 길』. 서울: 영림카디널, 1999.
 앤서닌 에브니(저)/최광열(역), 『시간의 문화사』. 서울: 북로드, 2007.
 王力(저)/李鴻鎮(역), 『中國古代文化常識』. 서울: 형설출판사, 1989.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서울: 문학과학지성사, 2000.
 李相俊, 「고대 동아시아의 칠석문화연구」. 『日語日文學研究』, 65집, 일어일문학회, 2008, 291~311쪽.
 이태형, 『재미있는 별자리여행』. 서울: 김영사, 1999.
 장샤오위엔(저)/홍상훈(역), 『별과 우주의 문화사』. 서울: 바다출판사, 2008.
 정태민, 『별자리에 숨겨진 우리 역사』. 서울: 한문화, 2007.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직녀도」. 『역사와 현실』, 38집, 한국역사연구회, 2000, 123~149쪽.
 특별기획전고구려 행사추진위원회, 『특별기획전 고구려』. 2002.
 何新(저)/洪熹(역), 『神의 起源』. 서울: 東文選, 1990.
 許進雄(저)/洪熹(역), 『중국고대사회』. 서울: 東文選, 1991.

Thurston, Hugh, *Early Astronomy*. New York: Springer-Verlag, 1994.

天文시뮬레이션 프로그램

Cartes du Ciel 2.76

CyberSky 4.0.1

Starry Night Pro Plus 6

국문 요약

대체로 古代天文學에서는 힐라이어컬 라이징(Heliacal rising: 일출직전 혹은 일몰직후에 어느 天體가 지평선 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現象)과 힐라이어컬 세팅(Heliacal setting: 일출직전 혹은 일몰직후 어느 天體가 마지막으로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現象)을 활용하여 별을 관측하였다. 이 論文에서는 바로 이러한 별 관측 방식을 활용하여 牽牛織女說話에서 牽牛와 織女의 만남과 이별을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恆星들인 牽牛星과 織女星이 七夕 무렵에는 가까워진다는 잘못된 설명을 새롭게 해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牽牛와 織女가 한 해에 한번 烏鵲橋를 건너서 만나고 이별하는 이야기의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牽牛織女說話가 만들어졌다는 西漢(기원전 206~기원후 220) 初와 그 說話가 만들어진 지역으로 알려진 長安(현재의 西安 지역)의 밤하늘을 天文시뮬레이션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내었다. 그리고 이 밤하늘을 기준으로 하여 牽牛織女說話에서 실제로 언급되는 牽牛星(Aquila)과 織女星(Lira), 烏鵲橋(Cygnus)라는 세 별자리가 힐라이어컬 세팅하는 모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7월 7일 이전에는 (일출직전 서쪽 지평선 위에서) 牽牛星, 織女星, 烏鵲橋(백조자리)를 모두 볼 수 있다. 7월 7일이 되면서 (일출직전 서쪽 지평선 위에서) 牽牛星과 織女星은 볼 수 없고 烏鵲橋만 볼 수 있다. 7월 7일 이후가 되면 차츰 (일출직전 서쪽 지평선 위에서) 牽牛星, 織女星, 烏鵲橋를 모두 볼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牽牛星, 織女星, 烏鵲橋를 모두 밤하늘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밤하늘에서 (마음만 먹으면) 烏鵲橋를 건너서 만날 수 있다. 牽牛와 織女가 결혼한 뒤로 늘 함께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다음으로 7월 7일의 일출 직전 서쪽 밤하늘에서 牽牛星은 볼 수 없고 織女星과 烏鵲橋만 함께 볼 수 있다. 牽牛와 織女가 1년 동안 헤어졌다가 하루만 烏鵲橋를 건너서 만나고 아침에 헤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끝으로 7월 7일 이후에는 일출 직전 서쪽 밤하늘에서 牽牛星, 織女星, 烏鵲橋를 모두 볼 수 없게 된다. 牽牛와 織女가 烏鵲橋를 통해 한번 만나고 나서 다시 1년 뒤에나 만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볼 때 牽牛織女의 만남과 이별은 7월 7일 전후 일출직전 서쪽 지평선에 떠 있는 牽牛星, 織女星, 烏鵲橋(백조자리)의 움직임의 특징을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원전 200년 무렵에는 夏至點이 게자리 부근에 있었고 秋分點은 처녀자리의 엉덩이 쪽에 있었다. 그리고 7월 7일 무렵 해는 사자자리(동양의 별자리로는 軒轅이라고 부른다)의 뒷다리 쪽을 막 통과한다. 결국 7월 7일 무렵은 夏至와 秋分의 중간쯤 되는 立秋 정도에 해당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날씨로 보면 7월 7일 무렵은 여전히 한여름의 날씨가 기승을 부리지만, 해는 정확하게 여름을 지나 여름농사일을 마무리 짓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할 때 牽牛織女說話는 원래 계절이 7월 7일 무렵이면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그 무렵 牽牛星과 織女星의 움직임으로 스케치해낸 이야기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투고일 : 2009. 6. 21. ● 수정일 : 2009. 8. 28. ● 게재확정일 : 2009. 9. 14.
- 주제어(keyword) : 牽牛星(독수리자리; Kyeonu; Aquila), 織女星(거문고자리; Jiknyeo; Lira), 烏鵲橋(백조자리; Ojakgyo; Cygnus), 힐리어어컬 세팅(Heliacal Setting), 立秋(onset of autumn).